사상체질과 한열의 관점에서 본 성격과 소증의 연관성 연구

김명근 · 이혜정 · 진희정 · 유종향 ·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from the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 and Cold-Hot

Myoung Geun Kim, Hae Jung Lee, Hee Jeong Jin, Jong Hyang Yoo, Jong Yeol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t is one of basic principle that personality reflects physical conditions. In both of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there are some criteria used for diagnosis whether the patient is in cold or hot condition.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teria of cold-hot shown in personality pattern and ordinary symptom pattern. And also analyzed the relativeness in four constitution type. 877 patients who had visited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had been confirmed their constitution by drug response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ati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 questions. We selected questions related to cold-hot patterns. Next we made personality cold-hot index(PCHI) and ordinary symptom cold-hot index(OSCHI). The two indi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tally and from the viewpoint of 4 constitution type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wo indices was not high. In Soemin the coefficient was 0.257, in three other constitution it was lower than 0.200 or negative. In Soemin both indices were lower (cold-biased), but in three other constitution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ae-emin OSCHI was higher (hot-biased) than PCHI, in Tae-yangin PCHI was higher than OSCHI significantly. Personality is not affected by cold-hot less than expected. The criteria used for diagnosis of cold-hot seems to be biased on Soemin'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Personality, Ordinary symptom, Cold and Hot pattern

서 론

한열은 한의학의 진단 기준인 팔강 중에 관찰이 가장 쉬운 부분이며, 또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설명이 다른 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쉽다. 김 등[1], 배 등[2]의 한열 설문지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배경이 바탕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은 권[3], 백 등[4]에 의해 현대의학의 진단 지표들과 한의학의 한열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자의 한열 판단의 기준이 전문가 진단에 주로 의존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전문가의 진단에는 맥진, 망진, 투약의 결과 등과 문진의 결과가 같이 사용된다. 이 중 문진의 부분은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한열 설문지의 내용과 상당이 겹치므로 검증의 대상과 검증의 기준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열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성정과 증상을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았다. 황제내경에서 동의수세보원에 이르기까지 몸의 상태와 성격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한의학의 기본적인 원리로 취급되고 있다.

『황제내경』「영추」[5]의 '陰陽二十五人'편에는 음양의 편차가 몸과 성격에 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通天'의 木火土金水의 五形之人의 설명에서도 같은 관점이 시사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6] 에서는 아예 성정의 차이가 기의 승강호흡의 편차를 부르고 이 결과가 장부의 대소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체질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병증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肝心脾肺腎의 각 장부는 각각 怒喜思悲恐의 감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감정 상태를 장부의

* 교신저자 : 김종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 E-mail : ssmed@kiom.re,kr, · Tel : 042-868-0489

· 접수 : 2008/11/21 · 수정 : 2008/11/24 · 채택 : 2008/12/01

상태를 파악하는 변증 지표로 사용하고 하며, 역으로 각각의 장부와 관련된 증후를 정신과적 질환의 변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7].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증, 혹은 열증이 있을 때 나타나기 쉽다고 알려진 성격들과 몸에서 나타나는 증후를 비교하는 것을 한열의 지표를 검정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본 것이다.

성격에서 나타나는 증후들과, 몸에서 나타나는 증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양식을 위주로 하는 성격 설문의 결과에는 사상체질 등의 선천적인 부분과 몸의 상태에 따른 후천적인 부분들이 섞여 나오며, 이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성격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와 비교를 하려면 증상 역시 평소의 소증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여야 하는데, 한의학의 병리학, 진단학에서 제시하는 증후들은 주로 병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를 소증에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진단과 복약의 결과로 사상체질이 확인된 877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소증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열증, 한증을 기준으로 성격 설문과 증상 설문의 결과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상체질에 따라 다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대상자의 선정과 설문의 시행

1)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진단 과학화를 위한 체질정보 수집체계 구축' 연구(이하 체질정보 구축)의 2차년도(2007년 7월~2008년 6월)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동 연구는 한의학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윤리심의를 통과하였다

대상자는 전국 9개 한방병원과 4개의 한의원에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내원한 환자 중 체질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체질의 확인이라 함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로 하였다.

⑴ 사상의학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사상진료를 해 온 일반의가 체질을 확진하였음.

⑵ 확진 이후 해당 체질의 체질처방을 20첩 이상 복용하였음.

⑶ 총 체질 처방 복용량이 60첩 이상인 경우는 처방에 따른 주소증, 또는 3개 이상의 표준 소증이 개선되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을 것. 복용량이 20첩 이상 60첩 미만의 경우는 주소증과 3개 이상의 표준 소증에서 동시에 현격한 개선을 보이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을 것.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⑴ 10세 미만과 80세 이상

⑵ 연구동의서, 임상자료 수집 계획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

⑶ 빈혈 또는 기타의 이유로 채혈이 불가한 사람

⑷ 임신부

⑶, ⑷의 조건은 본 연구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체질정보 구축 연구에 대상자의 유전적 특성, 생화학적 연구가 포함되었기에 채혈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제외된 것이다.

대상자의 체질별 성별, 연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Age	Male	Female	Total
10-19	32(9.9)	25(4.5)	57(6.5)
20-29	27(8.3)	61(11.0)	88(10.0)
30-39	56(17.3)	108(19.5)	164(18.7)
40-49	71(21.9)	123(22.2)	194(22.1)
50-59	76(23.5)	105(19.0)	181(20.6)
60-80	62(19.1)	131(23.7)	193(22.0)
Total	324(100)	553(100)	877(100)

2) 성격 설문의 구성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격, 소증 등을 포함하는 총 181 문항의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설문은 체질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한 표준 설문지로, 성격, 소증 이외에 병증, 부인과 설문, 양방의 기왕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격 설문은 한증과 열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적극성, 활동성, 과단성, 외향성 등을 중심으로 한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열의 차이에 따라 성격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한열변증 설문지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성격을 언급한 경우가 간혹 있으나, 주로 신체적 증상을 위주로 된 설문에 한, 두개의 성격 증상을 언급한 정도가 전부였으므로, 성격 설문은 자체 개발을 하였다.

성격 설문지 문항 중 1~7번 문항은 아래의 과정으로 채택되었다

⑴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익산 소재 원광한의원에서 1335명에 사용한 문진표[8]에 수록된 12개 성격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응답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문항 9개를 선정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의하여 이뤄진 체질정보 구축 연구 1차년도에 대상자에게 설문 시행

⑵ 위의 과제에서 얻어진 584 명의 자료에서 응답이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타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아 독립성이 없는 질문 2개를 삭제

8~15번 문항은 아래의 과정으로 채택되었다

⑴ 2005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연구원 자체 과제로 이뤄진 온라인 사상체질진단 설문프로그램1의 개발에 수록된 설문 중 성격 관련 설문을 추출

⑵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응답이 긍정, 부정의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친 문항을 배제하고 30문항을 추출.

⑶ 한의학 연구원내의 임상경력 5년 이상 된 한의사 4인의 토의에 의해 양적인 성격, 음적인 성격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며, 내용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판단되는 문항 8개를 추출.

⑷ 예/아니오 형태의 설문을 점수형 설문으로 수정

설문은 선행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초기 개발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직설적 질문을 위주로 하고, 성격심리학에

서 언급하는 기본적인 성격 특성에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0점, 1점,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성격지수(Personality Index)로 정의하였다(Table 2).

Table 2. Personality Questions

성격 설문지					
1. 성격이 대범하신가요? 섬세하신가요?	대범	②	①	0	섬세
2. 행동이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빠르다	②	①	0	느리다
3. 매사에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적극적	②	①	0	소극적
4. 말 또는 표현을 대놓고 하는 편인가요? 돌려서 하는 편인가요?	직접	②	①	0	간접
5. 포기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포기 빠름	②	①	0	포기 느림
6. 성격이 외향적인가요? 내성적인가요?	외향	②	①	0	내성
7. 평소 활동적인 편인가요? 조용한 편인가요?	동적	②	①	0	정적
8. 결정을 쉽게 하는 편인가요? 어려움을 겪는 편인가요?	쉽게	②	①	0	어렵게
9. 남성적인 편인가요? 여성적인 편인가요?	남성적	②	①	0	여성적
10. 참을성이 부족한 편인가요? 잘 참는 편인가요?	참을성 부족	②	①	0	잘 참음
11. 감정의 변화가 큰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큰 편	②	①	0	적은 편
12. 속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편인가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인가요?	잘 드러냄	②	①	0	안 드러냄
13.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표현하지 않는 편인가요?	잘 표현	②	①	0	표현안 하는 편
14. 가끔 흥분하는 편인가요?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편인가요?	가끔 흥분	②	①	0	이성적으로
15. 덜렁대는 편입니까? 꼼꼼한 편입니까?	덜렁	②	①	0	꼼꼼

3) 소증 설문의 구성

소증 설문 역시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표준 설문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설문의 소증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서론에서 언급한 한열 표준 문진표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 13개를 골라서 분석에 적용하였다(Table 3). 채택된 소증 항목은 식욕과 소화/ 땀/ 대소변/ 음수/ 표열을 기준으로 다섯 분류로 나누어 각 분류 당 같은 점수를 배당하였다.[1] 분류 중에 질문이 여럿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의 점수를 개별 질문에 분배하였다. 상초열, 중초열, 하초열, 리열, 표열 등의 상태가 고르게 반영되게 하려면 13개의 개별 질문에 같은 점수를 배당하는 것보다는 각 대분류에 같은 점수를 주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를 소증지수(Ordinary Symptom Index)로 정의하였다.[2]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적일치도 분석과 체질간의 평균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tes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r)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Table 3. Ordinary Symptom Questions

상위 문항	하위문항	응답형태	하위 점수	상위 점수
식사	평소 하루 식사량은 어떻습니까?	3■보통 6■많다 0■적다 3■일정하지 않다	6	24
	평소 식사 속도는 어떻습니까?	3■보통 6■빨리 먹는다 0■천천히 먹는다	6	
소화	소화가 잘 되십니까?	6■그렇다 0■아니다	6	
	평소 입맛이 어떻습니까?	3■보통 6■좋은 편 0■안 좋은 편	6	
땀	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 편입니까?	24■많다 16■적당하다 8■적다 0■없다	24	24
대변	대변의 형태는 어떤 편입니까? (굳기)	12■딱딱함 6■중간 0■무름	12	24
소변	하루 소변을 몇 회 보십니까?(수면 시 제외)	0■2~3회/일 4■4~7회/일 8■8~9회/일 12■10회 이상	12	
한열	평소 추위, 더위 어느 것이 더 싫습니까?	0■추위12■더위6■모두 싫다6■모두 괜찮다	12	24
	손, 발, 배 부위가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4■손이 따뜻하다2■중간 0■손이 차다 2■잘 모름	4	
		4■발이 따뜻하다2■중간 0■발이 차다2■잘 모름	4	
		4■배가 따뜻하다 2■중간 0■배가 차다 2■잘 모름	4	
음수	평소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0■조금 6■중간 12■많이 마신다 6■조금씩 자주	12	24
	평소 마시는 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0■주로따뜻한 물 12■주로찬물 6■가리지않고 마신다	12	

결 과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다. 각 지수의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격지수의 경우는 Cronbach's α가 0.801, 소증지수의 경우는 Cronbach's α가 0.598로 나타나 설문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2. 성격지수와 소증지수의 체질별 분석

성격지수와 소증지수의 체질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체질별 지수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test를 시행하고 다중비교로는 Duncan's test를 시행하였다(Table 4). 그 결과 한열지수와 성격지수 모두 체질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5%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Duncan's test결과, 한열지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소음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태음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지수의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태양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성격지수와 소증지수의 상관성 분석

1) 선행 연구에 언급된 한열 증상의 대부분은 본 연구에 사용된 표준 설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열감, 면홍 같은 상초열과 관련된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이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2) 분류 내의 문항 간 점수 배분은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손이 따뜻하다/차다', '발이 따뜻하다/차다', '배가 따뜻하다/차다'의 세 문항은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유사한 속성에 지나친 점수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 문항을 합한 점수가 '더위를/추위를 더 싫어한다'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였다.

성격지수와 소증지수의 상관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데이터를 대상으로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r=0.210이며 체질별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는 소양인은 r=0.182, 태음인은 r=0.156, 태양인은 r=-0.143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인의 경우에만 r=0.257로 일반적으로 약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r=0.3에 가깝게 나타났고 다른 체질은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4. The Significant Result of Mean Difference in Constitutions A, B show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Duncan's test.

	Constitution	Mean±SD(N)	F	p-value	Duncan		
Personality Index	Soeumin	13.23±6.05(230)	23.59	1.1E-14	A		
	Taeumin	15.37±5.88(346)			A	B	
	Soyangin	17.57±5.98(282)				B	C
	Taeyangin	18.27±5.66(15)					C
Ordinary Symptom Index	Soeumin	53.31±18.48(229)	42.85	8.32E-26	A		
	Taeumin	70.82±17.77(339)					C
	Soyangin	62.95±18.45(278)				B	
	Taeyangin	57.27±19.08(15)			A	B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wo indices.

Constitution	N	Pearson's r	p-value
Soeumin	227	0.257	8.9E-5
Taeumin	338	0.156	0.004
Soyangin	277	0.182	0.002
Taeyangin	15	-0.143	0.612
Total	860	0.210	4.9E-10

4. 성격과 소증지수의 합, 차에 대한 분석

임상 현장에서는 성격과 소증을 함께 검토하여 음적(한증)으로 치우친 면이 많으면 음인일 가능성을 반대의 경우 양인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격지수와 소증지수의 합을 구해보았다.

두 지수가 scale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지수에 대하여 평균을 0으로, 표준편차 1로 하는 표준화 점수(Z)를 구하여 이를 합해 보았다. 또, 성격과 소증의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온 것을 고려하여 두 지수의 차이가 체질 판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지수 간의 차이를 구해보았다.

역시 합과 마찬가지로 표준화한 점수 간의 차이를 구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6).

Table 6. The Significant Result of Mean Difference in Constitutions A, B show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Duncan's test.

	Constitution	Mean±SD(N)	F	p-value	Duncan		
The difference of Two Index (ZPersonality Index-ZOrdinary Symptom Index)	Soeumin	0.12±1.17(227)	23.69	9.8E-15		B	
	Taeumin	-0.41±1.21(338)			A		
	Soyangin	0.35±1.23(277)				B	C
	Taeyangin	0.75±1.44(15)					C
The Sum of Two Index (ZPersonality Index+ZOrdinary Symptom Index)	Soeumin	-0.89±1.52(227)	38.92	1.41E-23	A		
	Taeumin	0.36±1.42(338)				B	
	Soyangin	0.30±1.48(277)				B	
	Taeyangin	0.13±1.24(15)				B	

체질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test를 시행한 결과 지수차와 지수합 모두 체질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5%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Duncan's test결과, 지수차의 경우는 태음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태양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수합의 경우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 간의 상관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낮게 나왔다. 성격 설문의 결과를 열증 성격에서 한증 성격의 순서로 늘어놓으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서로 나타나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측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소증 설문의 결과는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의 순서로 열증의 소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인은 성격과 소증 모두에서 음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세 체질의 경우는 뚜렷하지 않았다.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를 합한 결과는 소음인과 비소음인으로 구분이 되고 다른 세 체질간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다.

성격 한열지수와 소증 한열 지수의 차이에서는 태음인은 뚜렷한 음의 값을, 태양인은 뚜렷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소양인은 약간의 양의 값을 보였다.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의 상관도가 낮게 나온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 번째는 성격에는 원래의 체질이 작용하는 면이 커서 몸의 한열의 상태가 반영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경우이다. 두 번째는 현재 한의학에서 한열을 보는 관점은 각 체질에서의 한열에 따른 소증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모든 체질에 고르게 적용하면 실재적인 한열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예측된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음인 병리는 거의 밝혀졌으나, 소양인 병리는 반 쯤 밝혀져 있고, 태음인 병리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9]. 본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 간에 상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소음인의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그 상관도의 순서가 이제마가 병리가 밝혀졌다고 한 정도의 순서대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태양인은 숫자가 적어서 충분히 유의한 결과로 보기는 힘드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현재의 한열을 보는 관점이 각 체질에 따른 생리, 병리 해석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현재 한열을 보는 관점이 체질별 한열의 양상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소음인의 병리 쪽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더 반영되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소음인의 경우 두 지수 간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다른 세 체질에서는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점도 이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점 들이 눈에 뜨인다.

성격과 소증을 같이 고려하는 방식의 체질 분류는 소음인과

비소음인의 분류에서 적당하나,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을 분류하는 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른 세 체질 간에는 성격과 소증의 차이, 즉 소증이 보이는 한열 양상에 비하여 성격이 상대적으로 음적인가 양적인가를 보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소증의 한열을 구분함에 있어 체질별로 한열 판단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등[10]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즉 多汗을 소음인의 경우는 虛症으로 태음인, 소양인의 경우는 熱症으로 해석하는 것, 소양인의 설사는 熱泄로 해석하는 것 등 체질별로 한열, 허실의 판단 기준을 다르게 잡는다면 성격의 한열지수와 소증의 한열지수간의 상관도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하겠다.

결 론

약진으로 체질이 확인된 877명의 대상자에 있어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를 구하여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소음인이 다른 세 체질보다는 성격과 소증의 한열지수 간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0.3을 넘지 않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소음인은 성격과 소증 모두 한증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세 체질은 뚜렷하지 않았다. 두 지수의 표준화 점수의 비교에서는 소음인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은 성격이 소증보다 한증 경향이 강한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태양인은 열증 경향이 강한 성격으로, 소양인은 열증 성격이 약간 강한 성격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K08020).

참고문헌

1. 김숙경, 남동현, 박영배, 한열 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1). 대한한의진단학회지 6(2):141-160, 2002.
2. 배노수, 박영재, 오한섭, 박영배, 한열 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한열고찰. 대한한의진단학회지 9(1):98-111, 2005.
3. 권오순, 한열허실 변증 진단 타당성 연구.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8.
4. 백태선, 박영재, 박영배, 박재형, 임재중. 한열변증 설문지와 일반적 건강 검진 결과와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9(2):145-151, 2005.
5. 배병철 역, 금석 황제내경 영추. 서울, 성보사, pp 463-479, 524-532, 1995.
6. 이제마 원저, 홍순용, 이을호 역술.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 pp 44-51, 1985.
7. 황의완, 김지혁 편저, 동의정신의학.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pp 99-109, 1992.
8. 김종열, 김홍기,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5(3):124-138, 2003.
9. 이제마, 前揭書. pp 101-106.
10. 이경노, 김경효.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한열증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1(1):9-102, 1999.